

Mobility/EV (Overweight)

4월 미국 신차 판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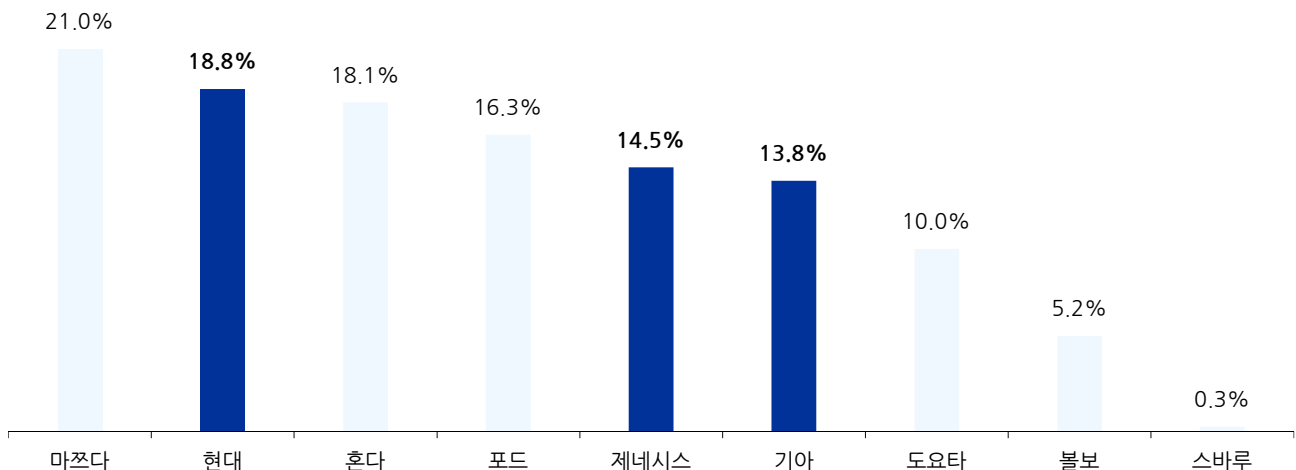
자동차 산업 포인트

4월 미국 신차 판매는 관세 부과 전 선수요 지속되며 강세 현대차(+19%), 기아(+14%)의 판매 증가폭은 시장을 아웃퍼폼하며 사상 최대치 경신
다만,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판매 급감 우려는 오히려 확대

이재일 CFA _ lee.jae-il@eugenefn.com

- 4월 미국 신차 판매는 관세 부과 전, 신차 구매를 서두르는 소비자들로 인해 전년비 13% 증가한 149만대를 기록. 일별 판매 강도는 3월 57,400대에서 62,000대로 전월비 10% 상승
- 브랜드별 판매(전년비): 현대(+18.8%), 기아(+13.8%), 제네시스(+14.5%), 포드(+16.3%), 혼다(+18.1%), 마쓰다(+21%), 스바루(+0.3%), 도요타(+7.9%)
- 25%의 수입차 관세 부과(4월 3일)에 이어, 수입 부품 관세(5월 3일)가 연이어 발효. 다만, 26년 4월 30일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격의 15%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면제, 이후 1년 간은 10% 면제 방침
- GM, 현대차, 도요타 등 주요 메이커는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방침이나 6월부터는 가격 인상이 시행될 것으로 보임. 관세로 인한 부담금은 수입차의 경우, 평균 8,700달러, 수입 부품으로 인한 미국 내 생산 인상분은 4,239달러로 추정됨. USMCA 관세 유예 연장과 관세 부담 경감으로 GM 등 미국 업체의 관세 부담은 1,000달러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, 한국 등 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 큰 메이커는 2천 달러 내외의 비용 부담 발생 전망
- 관세로 인한 공급망 조정이 본격화 될 경우, 시장 경쟁 구도의 변화 나타날 것. 본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 비중 큰 한국, 일본 등 수출 메이커의 원가 압력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판매 호조를 낙관적으로 볼 수 만은 없음. 한미 간 무역협상을 통해 대응 시간을 벌 필요가 있을 것

4월 미국 주요 브랜드별 LV(Light Vehicle) 판매 성장률(전년비)



자료: AutoneWS, TrueCar, 유진투자증권
참고: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제외한 순수 현대 브랜드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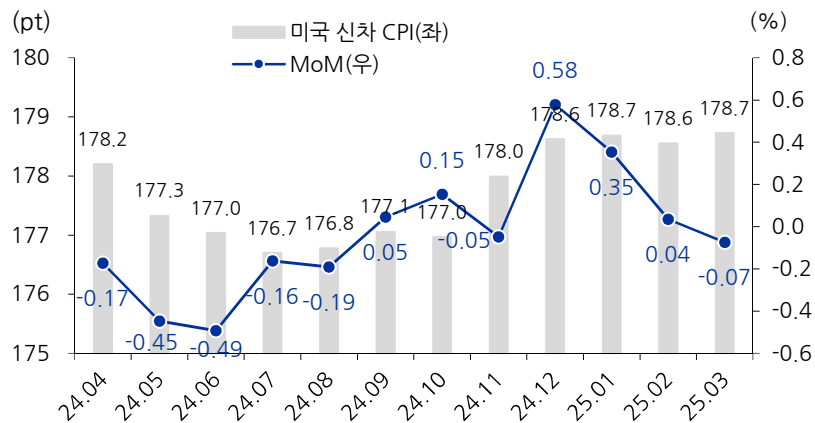


도표1. 메이커별 4월 미국 신차 판매

(단위: 대)	2025-04	2024-04	YoY
포드	196,098	170,302	15.1%
링컨	11,615	8,297	40.0%
포드(합계)	207,713	178,599	16.3%
아큐라	14,019	10,544	33.0%
혼다	123,637	106,042	16.6%
혼다(합계)	137,656	116,586	18.1%
제네시스	6,307	5,508	14.5%
현대차	81,503	68,603	18.8%
현대차(합계)	87,810	74,111	18.5%
기아	74,805	65,754	13.8%
현대차-기아(합계)	162,615	139,865	16.3%
마쓰다	37,660	31,125	21.0%
스바루	56,011	55,863	0.3%
렉서스	35,174	28,479	23.5%
도요타	197,871	183,339	7.9%
도요타(합계)	233,045	211,818	10.0%
볼보	11,160	10,604	5.2%
7개사 합계	845,860	744,460	13.6%

자료: AutoneWS, TrueCar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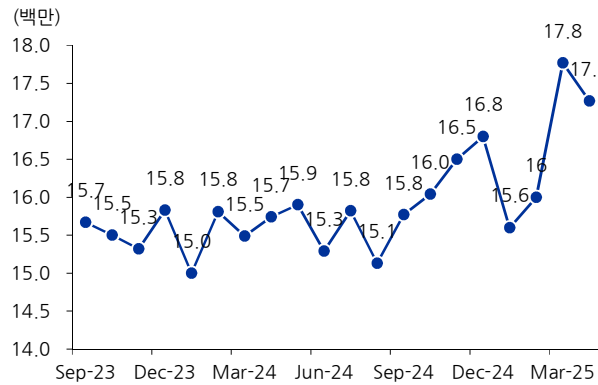
도표2. 미국 도심 소비자 신차 가격 지수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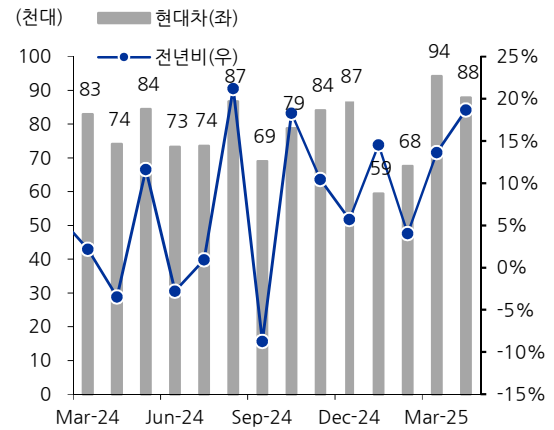
도표3. 미국 월별 SAAR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참고: Seasonally Adjusted Annual Rate는 월 판매 강도를 연으로 환산한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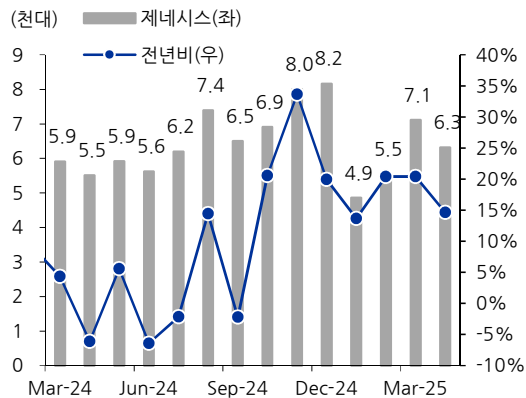
도표4. 현대차 미국 시장 월별 판매



자료: 현대차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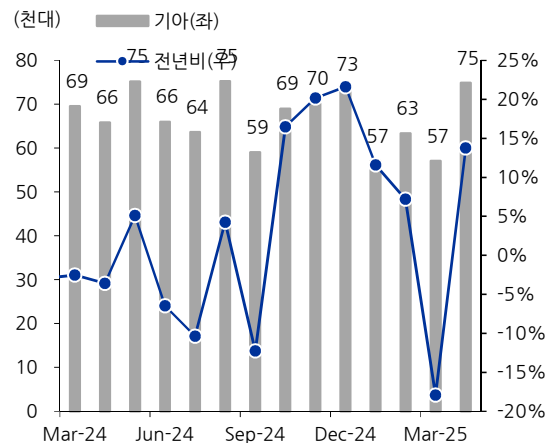
참고: 현대차, 제네시스 브랜드 합산

도표5. 제네시스 미국 시장 월별 판매



자료: 현대차, 유진투자증권

도표6. 기아 미국 시장 월별 판매



자료: 기아, 유진투자증권

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 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6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4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5.03.31 기준)

